

‘베트남 점유율 1위’ LS산전, 동남아 전력 공략 박차

베트남 ‘KOSEF 2019’ 참가
민간기업 최대 12부스 전시

스마트전력 솔루션 역량에
신재생 발전 솔루션 앞세워
베트남 넘어 동남아 공략 속도

LS산전이 동남아 공략을 본격화한다. 베트남 시장을 발판 삼아 더 큰 시장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LS산전은 17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리는 ‘2019 한국-베트남 스마트 전력에너지전(KOSEF 2019)’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LS산전은 전시회에 민간기업 최대인 12부스 규모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베트남 전력 토털솔루션 공급자’를 콘셉트로 108㎡ 규모로 조성됐다.

LS산전은 전시회에 직류와 교류 등 스마트 전력 통합 솔루션 역량을 선보



LS산전은 베트남에서 열리는 전력에너지전을 계기로 동남아 진출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LS산전

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고객 맞춤형 플랫폼 ▲스마트 전력 솔루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솔루션 등 3개 테마를 중심으로 꾸몄다.

DC/AC 제품 솔루션도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전력공사와 전남 서거차도에

조성한 ‘직류 배전 에너지자립섬’과 DC C 1500V 배선용차단기(MCCB), DC 1000V/1500V급 릴레이, DC 1500V 4000A급 개폐기 등도 공개했다.

산업용 ESS 시장 공략을 위한 차세대 PCS 제품과 이동형 변전소 등도 함께한다. 전력변환 핵심 부품인 펌(PEB



LS산전이 베트남 전력에너지전에 출품할 예정인 직류 전용 전력기기. /LS산전

B)을 용량 단위로 모듈화해 스마트 독립 운전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는 신재생 발전시스템 분야 토털 솔루션 역량을 강조한다.

아울러 이동형 변전소와 대용량 전력 유연 송전시스템, 차세대 스마트배전 솔루션 등도 함께 전시한다.

LS산전은 이같은 기술력을 강조하

며 라오스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전역으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LS산전은 베트남에서 시장 점유율을 50% 가까이 점유했다. 1997년 일찌감치 LSIS-VINA를 설립했으며, 호찌민에도 LSCV를 추가 설립해 2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올 들어 하이퐁 전선 소재 공장을 증설하고 호찌민에 중전압 케이블 라인을 증설하는 등 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LS산전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전력 기술과 신재생 발전 솔루션을 앞세워 글로벌 메이커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각인 시킬 것”이라며 “베트남 저압 전력기기 점유율 목표적 1위를 교두보로 동남아 전력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아시아나항공, 현장에 스마트 워크 플랫폼 도입

태블릿 PC로 각종 캐빈업무 한눈에

업무효율 개선 에이탭 시스템 도입
4000여 승무원에 태블릿 PC 지급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아시아나항공 캐빈승무원들이 새롭게 지급받은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캐빈승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워크 플랫폼인 ‘에이탭(A-tab)’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에이탭 시스템은 캐빈승무원들이 태블릿PC를 통해 업무 관련 정보 및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일종의 스마트 워크 플랫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주 내로 4000여 명의 캐빈승무원에게 태블릿 컴퓨터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캐빈승무원들은 비행 전에 이탭 시스템을 통해 비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업무 매뉴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비행 관련 보고서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기내 서비스 관련 편의성 기능 등을 확대해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더욱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새로운 에이탭 시스템을 시험해본 신선 해선 선임승무원과 조민진 승무원은 “무거운 매뉴얼 등 비행 관련된 서류 대신 에이탭을 들고 다니게 되면, 부피가 줄어서 짐을 훨씬 간편하게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며 “또한 비행 관련된 모든 정보가 미리 에이탭에 업데이트되어 있어서 비행 준비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화면 끊김 최소화’ 게이밍 모니터 선풍

삼성전자 ‘CRG5’ 27형 국내 출시
주사율 240Hz … 지싱크 호환 가능



삼성전자는 주사율 240Hz 게이밍 모니터를 국내에 출시한다. 엔비디아 지싱크도 지원한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주사율 240Hz 게이밍 모니터를 국내에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15일 CRG5 27형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출고가는 43만 원에 책정됐다.

신형 모니터는 240Hz 래피드커브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1초당 240번 출력해 매끄러운 화면을 보여줄 수 있으며, 1500R 곡률 커브드 스크린으로 몰입감이 높아진다.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도 가능하다. 빠른 화면 전환에서도 끊기거나 찌그러진 현상을 최소화해준다.

광시야각을 지원해 어디서든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다. 명암비도 3000:1이나 된다. 커브드 VA 패널을 사용했다. 다양한 출력 모드도 있다. 게임모드와 가상 표적 기능, 아이세이버 모드와 플리커 프리 등이다. /김재용 기자

카페서 충전… 현대오일, 미래차 연료사업 진출

중앙제어, 차지인과 공동구축 협약
하이브리드 스테이션 컨소시엄 구성
내년까지 전국 10곳에 충전기 설치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에서 한환규 영업본부장, 신상희 중앙제어 대표, 최영석 차지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중앙제어는 국내 1위의 전기차 충전기 제작기업이며 차지인은 충전기 운영 전문기업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들과 함께 ‘하이브리드 스테이션 컨소시엄’을 구성해 내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속초 소재 주유소와 대형 소매점 10곳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발생하는 운영 수익은 세 개 회사가 합의한 비율대로 나눈다. 일정 기간 시범 운영 기간이 지나면 현대오일뱅크는 전국 2300개 자영 주유소에 수익모델을 전파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5만6000대인 전기차 대수는 2030년까지 매년 평균 15% 증가해 3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지난 12일 서울 중구 현대오일뱅크 서울사무소에서 최영석 차지인 대표, 한환규 현대오일뱅크 영업본부장, 신상희 중앙제어 대표(왼쪽부터)가 협약식을 연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추정된다.

반면 충전기는 관공서와 공영주차장 등에 주로 설치돼 있어 운전자들이 이동 중에 쉽게 들르기 어려운 실정이다. 운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도로마다 판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정유사 참여가 필수다.

수도권 일부 직영사업장에만 충전기를 운영 중인 경쟁사와 차별화를 위해 현대오일뱅크는 전국 거점 도시 내 대형 마트와 카페,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도 충전기를 설치·운영한다. 20, 3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차 운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서다.

9월부터는 차지인 현재 운영 중인 전기 충전기에 현대오일뱅크 보너스카드 결제시스템이 도입된다. 차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호 규제 샌드박스 사업’ 대상 기업으로 전국에 1300개의 전기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전기차 운전자들을 보너스카드 회원으로 확보, 맞춤형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기회도 모색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SK브로드밴드, 세계최초 2.5기가 케이블모뎀 개발 성공

총 5개 포트 제공, 다양한 단말기 수용

SK브로드밴드는 세계 최초로 2.5기가(Gbps)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는 케이블모뎀 개발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케이블모뎀은 HFC망에 인터넷과 IPTV를 제공하는 단말장치를 말한다.

광동축혼합망(HFC) 기술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로 구성된 망을 이용해 초고속인터넷과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전에는 최대 500메가

비피에스(Mbps)까지 서비스가 가능했으나 이번 케이블모뎀 개발로 최대 2.5기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7년 국내 최초로 닥시스(DOCSIS, HFC망 통신을 위한 표준) 3.1 기술을 적용해 1기가 속도제공 케이블모뎀을 개발한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초로 2.5기가 속도제공 케이블모뎀 개발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케이블모뎀은 기존에 1기가 4개 포트에 추가로 2.5기가 포트까지 총 5개

의 포트를 제공한다. 다양한 단말기를 수용할 수 있어 집안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등 여러 단말기를 사용하는 통신 환경에 최적화돼 있다.

아울러 상향 대역폭을 기존 100Mbps에서 500Mbps로 향상시켜 두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1기가 서비스를 사용해도 끊김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CMTS(HFC 망장비) 연동시험, 주파수 재배치, 시범서비스 등을 거쳐 내년 HFC 2.5기가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lkni@